



**빨주노초 봄 채비**    입춘을 지나면서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오르내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다. 17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꽃을 피우리 농원' 직원이 팬지 등 겨우내 화사한 꽃을 피워낸 봄꽃 출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근혜 정부도 '호남'은 없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조각 완료 '무늬만' 호남 인사 2명뿐 빛바랜 대통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구호가 호남 출신 인사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졌다. 박 당선인은 17일 11개 부처의 후속 내각 인선을 발표했으나 서울과 영남지역 출신을 우대할 반면 호남 출신은 외면해 대통합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 당선인은 이날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통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벤처기업인인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 통일부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수산축산부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3선)을 각각 내정했다.

또 환경부장관에는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장관에는 조운선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각각 내정,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후속 11개 부처 장관 내정 인선을 김용준 대통령직인사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

- 경제부총리 **현오석**
- 미래창조 **김종훈**
- 통일 **류길재**
- 농림축산 **이동필**
- 산업통상 **윤상직**
- 보건복지 **진영**
- 환경 **윤성규**
- 고용노동 **방하남**
- 여성가족 **조운선**
- 국토교통 **서승환**
- 해양수산 **윤진숙**

6개 부처 장관에 이어 이날 후속 인선 발표로 새 정부 조각은 완료됐다. 새 정부 장관 내정자 1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7명, 영남 출신은 5명인데 반해 호남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2명뿐이어서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했던 '탕평 인사' '호남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종훈 미래    류길재 통일    이동필 농림  
윤상직 산업    진영 보건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  
조운선 여성    서승환 국토    윤진숙 해양

평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말 뿐이었고 호남 인사 배제는 여전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신뢰를 저버렸다. 새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복원과 국민대통합 등 주요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통합 장병관 광주시장 위원장도 "박 당선인이 항상 주장했던 지역균형발전과 대통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여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아주 실망스럽다. 최악이 이명박 정부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LPGA 개막전 신지애 우승

영광 출신의 '지존' 신지애(25·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 개막전 우승과 함께 세계 정상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신지애는 17일 호주 캔버라 골프장(파73·6679야드)에서 열린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마지막 날 라운드에서 1언더파 72타를 치며 함께 18언더파 274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관련기사 14면>

부상으로 부진을 거듭한 틀을 타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차지한 청아니(대한·함께 16언더파 276타)를 2타 차로 따돌리며, LPGA 통산 11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지난해 9월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1년10개월만의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도 4년만에 우승컵을 재탈환하며 부활을 알렸다.

3라운드까지는 '골프천재' 리디아 고(16·고보경)와의 1위 싸움이 전개됐다. 3위와 6타차 공동 선두로 3라운드를 마감한 신지애와 리디아고는 4라운드에서 청아니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14번 홀(파4)이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버디로 기세를 올린 신지애는 15번 홀에서도 연속해서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한편 리디아 고는 언니들과의 대결에서 14언더파 278타의 기록을 써내며 3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

## 동부그룹, 대우일렉 인수 완료... "2017년까지 매출 5조 달성"

# 광주공장 1500억 투자, 2000명 채용

광주에 생산기반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내년까지 1500억원이 투자된다. 2017년 매출 5조 달성 계획에 따라 2000여명 규모의 인력채용도 뒤따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동부그룹은 지난 15일 대우일렉 인수작업을 종결하고, 주요 경영진 선임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재형 신임 대우일렉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인수 뒤에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에어컨과 청소

기, TV, 식기세척기 등을 판매하는 종합가전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며 "삼성전자, LG전자의 뒤를 잇는 제3의 종합 가전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부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대우일렉을 세계 10위 종합전자회사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내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생산 시설 및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설비투자에는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금형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시설 투자에 따른 2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인

력 채용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인수로 대우일렉이 채무가 없어지면서 '클린 컵과 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현재 공급이 부족한 멕시코 공장 생산 라인 증설과 광주 공장 효율화, 신제품 개발 등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밝혔다.

대우일렉을 2017년까지 매출액 5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 이익률 6%의 건실한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대우일렉은 매출액 1조9000억원, 영업이익 130

억원으로 워크아웃 상황에서도 5년 연속 영업흑자를 지속했다. 올 연말에는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TV도 다시 선보인다. 중국에서 생산할지, 과거 경북 구미에 있던 생산라인을 이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에서 대우일렉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동부그룹이 대우일렉 광주공장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이 부회장이 직접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성자동차(주)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1984. 10 창간

月刊 藝鄉

2013. 4

# 영농잡지

2002. 2 휴간

藝鄉

그 설레는 재회